



73년 오픈한 파리 최초의 한식당 <오아시스> 전설이 되다.

재벌 한인 1세대

인물복덕방 박광근

회장이 전해주는 생생한 멘토링

글 K.Yung / Ônomad

이 책은 독일광부 3년간의 막장노동후 맨몸으로 파리에 온지 13년만에 재벌 한인회장을 맡으며, 원화로운 소통과 인물 복덕방 역할을 자처해 온 한국인 1세대의 모범인생을 만들어갔던 시절을 소상히 들려준다.

<독일에서 파리까지> 회고록 한글판으로 출간, 2021년 겨울

재불 한인 1세대가 실체험한 초기 정착 반세기 역사를 생생한 기록으로 남긴 커뮤니티의 무형자산



83년도 7.14 일 파리에서 거행한 유럽 12 개국가 한인체육대회 광경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할 목적으로 69년 파리로 왔으며, 가족은 2년후 합류했다. 오아시스 파리 최초의 한식당, 한인회장을 거쳐 한불기업간 가교역활의자문, 세계 한민족 한상총연의 창립멤버로 활동해 온 기록은 '한인 교민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길라잡이'의 멘토링이다.

회고록이 자칫 60-70년대 해외정착을 위한 분투해 온 과정이나 개인의 성공신화에 그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 책은 페이지를 넘겨갈수록, 재불한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살아가려는 한국인만이 소유한 <우리>라는 커뮤니티 Clan 철학을 실천적으로 보여준다. 구 주불대사와 주불특파원 기자가 귀국하여 출간한 자서전이 있지만 교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여 나눈 덕담은 찾기 어렵다. 성공은 언제나 개인의 상향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장애는 물론 차별과 빈부격차로 또한 사회부적응으로 소외된 한인은 물론 3.4세대를 내려오며 차세대간의 아이덴티티의 갈등이 대두되었다. 반세기전 불모지의 유럽땅에 들어와 현재 2만여 재불 한인들간의 또한 모국의 가교역활을 자처해가며 어떤 환경과 문제에도 더 잘 적응해 가는 노력은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준다.

이 책은 읽는 이로 하여금 처세술과 인간관계 철학을 업그레이드 해준다. 박회장이 파리에서 분투해 온 시기에 식민지배와 탈식민 분쟁속에 유럽과 국제사회의 문화, 경제, 정치를 견인해 온 '30 Glorious Years of France'는 미국, 캐나다의 이민을 견인해온 이민대국이었다. 2010년대 이후로 재불, 유럽 한인 3.4세대가 열어갈 인종, 종교, 지정학적 경계를 허물어 가는 '30년 영광의 글로벌 한국' 시대로 변모해 가고 있다.

재불 한인 1.2세대들이 반세기동안 축적해 온 소중한 기록들이 더 출간되길 기대한다.

한인교포들은 물론 관공서, 특파원, TGV 기업인들, 한국전쟁 참전 베테랑들과의 깊은 우정, 한불간 교

역을 필요로 하는 한국의 기업인들과 자리를 같이 한 실체험들만이 녹록히 녹여나는 회고록은 <인간 복덕방> 박회장의 생활철학을 잘 보여준다. 진정한 행복은 결국 나의 재능과 노력을 이웃과 나눌 때 증폭된다는 사실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이 책은 단순한 회고록을 넘어 해외 한인커뮤니티 사회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안목과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한인 1세대가 첫 유럽에 이주하던 지난 반세기 동안은 전제주의적 State-nation의 맹목적인 국가관에서 서서히 벗어나 90년대 유럽통합이후 세계 각국들은 국가간의 협약을 통해 국경을 철폐하고, 이동-거주-노동의 자유를 공유하는 신자유경제 시대로 끊임없이 변모해온 반세기였다. 한국인들은 90년대 해외유학, 여행의 자유화로 굳이 반토막난 한반도의 땅에만 갇혀 살아야 할 구속도 없어졌다. 중요한 것은 미국, 유럽,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든, 공산주의 체제의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든지 혹은 민주주의 체제여부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다수의 한인교포가 살든지, 소수민족으로 생존하든지 또한 누가 거주국가를 통치하든지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21세기는 8백여만명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문화, 경제적으로 리딩해가는 역동적인 시대로 변모하고 있다.

회고록 인터뷰를 위해 만난 필자에게 첫인사로 'x 회장'이라고 불러 깜짝 놀랐다. 누구든 중년을 넘은 사람들을 만나면, 박회장은 습관적으로 먼저 x 회장으로 부른다. 재불 한인 1세대들간에 오래되고 친숙한 표현인 회사의 실전책임자인 사장보다는, 경륜과 사회적 존중을 내포한 널리 통용되는 <한인들간의 존칭>이다. 수십년만에 만나 특별한 호칭을 붙이기 어렵거나 상대를 높여 호칭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필자는 구 오아시스 식당을 서너차례 방문했던 90년대 박사장의 스마트한 인상을 기억한다. 이제 80대 나이에도 건장한 체구의 박회장은 매주 3일간 골프장을 찾는 젊음을 자랑한다.



7월 26일 파리 15 구에 위치한 rue Croix Nivert 의 한인회 사무실 앞 꾸스꾸스집에서 만났다,

오노마드 319 페이지의 회고록은 추측만 해왔던 재불한인사회를 직접 발로 쓴 내용들로 가득하여, 생생하게 사실들을 들려주어 단숨에 모두 읽었어요. 추천사도 꼼꼼이 챙기셨더군요.

박광근 : 주변에선 회고록 발간을 탐탁지 않게 여겨 처음엔 포기했었어요. 작년 서울에 갔다가 막내 처제가 구 오아시스 식당에서 만나 결혼한 남편, 파리에서 한식당도 경영했다가 한국에 돌아간 양해일 디자이너가 '회고록을 내면 내애기도 나오겠쇼'라며 기대와 용기를 주었어요. 매일경제 기자. 편집국장을 지낸 오랜 동갑내기 친구 배병휴가 '박형 회고록은 내가 써야지'라며 충동질을 하며 준비해 둔 원고를 흔쾌히 정리해 주었어요. 서울에서 매주 2번씩 3개월간 만나 인터뷰와 수정을 마쳤지만, 코로나 여파로 지체되었다가 21년 겨울 출간했지요.

박성범 (전 KBS 파리특파원), 권이종 (광부출신으로 독일 교육학 박사), 한상현 (파리 연합교회목사), 박관식 (소설가), 파리문화위원장을 거쳐 한불수교 주요행사들의 책임자 역할을 했던 최준호의 추천사들을 보내주며 격려를 해주었어요.

소수였던 관공직, 기업파견인들을 제외하고, 3개의 한식당들이 커뮤니티를 대표했던 재불 1세대의 역사는 68년 설립한 '재불한인회'로 시작된다. 당시 통계로 60년대 파리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겨우 170명도 그중 120명이 유학생이었어요. 최초의 오아시스 식당의 박희장, 파리 5구 현재 두아들이 대를 이어 40년 이상의 노포, 한림식당의 이철중 셰프오너, 그리고 르서울 식당 셰프로 정착했다가 90년대 Duplex 역 앞 우리식당 (현재 우정식당에 대입)을 오픈했던 조만기 세명을 손꼽는다.

73년 오픈한 파리 최초의 한식당 <오아시스> 전설이 되다.

오노마드 : 이철중회장 (한림식당)은 “박희장은 다른 많은 일들을

접어두고 오아시스 식당에만 전념했다면 부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지요. 뉴욕의 32번가, 런던의 주요 한식당들이 모국의 지원과 한국기업들의 현지 경제활동으로 크게 번성한 것과 달리 파리의 한식당들은 자녀들이 가업을 이어 가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이죠.

박광근 / 97년 모국 대한민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되고 관광객 발길이 줄어들자 교민들이 운영하던 식당과 여행사들이 줄도산 하게 됐어요. 일부 유학생들은 본국에서의 송금이 끊어져 집세가 밀려 '야반도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했어요.

82년 한인회장으로 선출된 후 유럽 한인체육대회 주관등으로 분주했다. 미술, 음악등 예술분야 지망 교민이나 유학생들에게 프랑스 정부지원 홍보, 안내 역할도 중요했다. 이에 한국문화원에 한인회 사무실을 마련, 교민과 유학생들의 파리 정착을 지원했다. 무엇보다 체류허가를 받고 주택임대차 알선이 중요하고 급했다. 대체로 한국식으로 보면 복덕방 역할이었다. 이 과정에 현금은 사양하고 수표거래를 선호하는 바람에 박희장은 수표를 남발하게 됐다. 이 결과 세무감사를 통해 무려 7억원 상당의 세금추징 통보를 받고 보니 너무 억울했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20년에 걸친 장기소송으로 투쟁했다. 결과는 추징규모를 2억원으로 3분의 1로 줄여 승소했지만 남은 것은 상처투성이였다. 소송 20년간의 변호사 비용에다 사업자산 등의 압류, 온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은 헤아릴지 어려울 정도였다. 결국 73년 파리 최초의 한인식당 오아시스 개업으로부터 29년차 식당운영을 마감했다. (회고록 125-127 페이지 발췌)

오노마드 : 한국대기업들의 출장. 파견인들이 중심이 된 유럽 진출 창구는 영국, 유럽대륙의 교두보인 독일커뮤니티는 일자리가 비교적 많았어요. 83년 당시 6개 대기업과 식당, 여행업소들로 이뤄진 재불 한인사회는 대부분이 학생들과 입양아들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어서 한인회장의 역할이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기에도 버거운 환경이었지요. 이런 지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KAL 007 민항기 피격 3일만에 500여명의 시위대를 구성하여 개선문에 집결하여 주불 소련대사관 앞으로 시위행진을 주관한 신출귀몰한 추진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박희장의 폭넓은 <인맥>이 없인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PKK - (160-162 페이지 발췌) 재불 한인회가 88 후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상품 전시회에 몰두하고 있는 기간에 충격적인 비보가 전달됐다. 83년 9월 1일 소련 전투기가 KAL 007 민항기를 조준 사격으로 격추 한 만행이었다. 이로 인해 무려 269명의 귀중한 목숨이 한꺼번에 희생됐다. 당시 프랑스 TV 화면을 통해 소련 전투기 조종사가 정확히 '조준 발사'로 격추 시켰다는 음성 녹음이 들려왔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한인회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파리시 경시청 루이 아마드 청장에게 요청하여 '초특급' 시위 허가를 받고 대소련 항의서를 작성키로 했다. 이 항의서는 곧 프랑스 대통령, 미국 대통령, 유엔 사무 총장에게 전달했다. 항의 집회 준비를 서둘러 피격 3일 만에 재불 한인회가 불한 친선 협회, 불한 경제인 연합회, 6·25 참전용사 협회 등과 함께 500여명의 시위대를 구성하여 개선문에 집결하여 주불 소련 대사관 앞으로 시위행진했다.



82년도 제네바 세계기사도 협회 주최 기사작위 광경



롯데상공동호텔에서거행한 세계상공인 서울시장초청 만찬장에서 (Sari는 파리 라데팡스 신도시 건설사업의 주관업체로서 박회장의 베디코 인터내셔널사와 파트너였다)



83년도 파리 생마리텡 백화점에서 거행할 한국상품 전시회 출품주문시 백화점 상품구매담당관과 한국 코트라 윤자중 사장님과함께



연도에는 수많은 파리 시민들과 각국 관광객들이 동조, 격려했다. 이들에게도 소련 당국에 보낸 항의서를 나눠 주었다. 이때 경찰은 시위대보다 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시위대를 보호하면서 질서를 유지시켰다. 다음날 아침 신문들이 표지 사진으로 크게 보도했다. KAL기 격추 2주째는 마들렌 성당에서 참사 피해 4개국 대사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의 각료, 국회의원 및 KAL 조종사와 승무원 등 2000여명이 참석한 희생자 추모식을 올렸다. 재불 한인회가 주관 한이 추도식은 대한 항공 조중훈 회장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주도 행사는 여러 종교인들의 참석을 고려하여 카톨릭, 기독교, 불교식 등으로 개최했지만 충격과 분노 앞에 엄숙한 분위기는 한 가지였다.

1968년 재불 한인회로 발족했다. 재불 한인회 초대 회장이 한인 학생회를 이끌었던 화가 한목이 회장으로서 1년 임기를 4차례를 맡았다. 역대 한인 회장들은 3·1절, 8·15 광복절, 한인 체육대회, 송년회 등 고정적인 행사 외에 한민족의 기대와 요청을 반영하여 수시, 임시 행사들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 교민을위한 생활 불어 강좌 (1982년) △ 무료 법률 상담 (1983년) △ 한인의 날 행사 (1984년) △ 교민 바둑 대회 (1991년) △ 3·1절 테니스 대회 (1993년) △ 한인회 회장 배 골프 대회 (1994년) △ 재불 한인 예술제 (1995년) △ 설 맞이 민속의 날 (1997년) △ 한인회 회장 배 테니스 대회 (1997년) △ 북한 동포, 조선족 돕기 운동 (1999년) △ 북한 돕기 자전거 대행진 (2000년) 등이 있다.

1세대 21대 이철중 한인회장 때 한인회관 '내집' 마련

재불 한인회의 기본 재원이란 회원들의 연회비가 주축이라 늘 재정난에 시달렸다. 이런 형편이니 한인회 회관이 없이 떠돌이 신세를 면할 수 없었다. 15대 박광근 회장 때 한국 문화원 내에 사무실 공간을 빌려 쓰기도 했지만 오래지 않아 비워주고 나와야만 했다. 1992년 제 21대 이철중 회장에 이르러 한인회관 마련 운동이 시작됐다. 회관마련 바

사회와 상호회 모금 운동으로 3년 만에 100만 프랑을 모금함으로써 파리 15구 (83, Rue de la Croix Nivert 75015, Paris)에 회관을 구입했다. 이로써 무려 26년 동안 떠돌이 난민 신세를 면하고 '내집장만'의 꿈을 실현했다. 이같은 감격으로 1994년 10월 1일, 재불 한인 회관 헌판식에는 장선섭 주불 대사 등 여러 대표들이 함께 테이프 커팅으로 자축했다. 한인회 회관을 마련한 뒤에도 운영 재정난은 거듭됐다. 모국 대한민국이 IMF 구제금융을 받게되고 관광객 발길이 줄어들자 교민들이 운영하던 식당과 여행사들이 줄도산 하게 됐다. 일부 유학생들은 본국에서의 송금이 끊어져 집세가 밀려 '야반도주' 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했다. 이 결과 제 24대 정대일 한인회장은 회관운영 유지마저 어려워 회장직을 사퇴하고 말았다. 이에 친동생인 박창근 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 할 수밖에 없었다.

세형제 모두 재불 한인 커뮤니티 활동에 열렬한 기동역할

지난 7월 작고하신 고인 박창근 친형은 커뮤니티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한인회 사무실에서 붓글씨를 최근 1년여 매주 수요일 가르치신 분이다. 그리고 친동생 박홍근 한인회장은 이후 유럽 한인 총연합 회장직도 맡았다. 또한 당연직 민주평통 유럽 회장직도 역임했다. 박회장은 한민족 대표자, 한상 총연 창립 멤버 박회장이 재불 한인 회장을 거쳐 모국 경제와의 협력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프랑스에 거주하는 한인 사회의 얼굴로 각인됐다. 이로부터 다시 '세계 한민족', '세계 한인상공인 프랑스 대표'로 더욱 크게 부각 될 수 있었다.

제 4회 해외 한민족 대표자 회의에 참가해서 88 올림픽 개막에 앞서 '세계 한민족 대표자 협의회'가 결성됐다. 창립 회장은 박병현 재일 거류민단 단장이 맡았다. 박광근 회장은 프랑스 한인을 대표하는 창립 멤버로 참여 하여 회장단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제 1회 대회는 도쿄에서 박병현 회장 주재로 진행되어 각국 거주 한민족 대표자들을 결속시킬 수 있었다. 제 2차 대회는 1989년 미국 워싱턴에서, 제 3차 회의인 1990년 파리 총회는 박광근 프랑스 대표가 대회장을 맡았다.

'이책은 개인의 이야기지만 역사의 소중한 기억이며, 후배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보편성있는 산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고 최준호가 추천사를 남겼다.

[저자소개] 박광근

독일광부 출신으로 파리에 이주한 후 오아시스 한식당 29년간 경영, 한인회장을 역임. 마르.라.발레와 라데팡스 신도시 한국기업 투자유치하며 한.불 경제인맥 축적했으며, 프랑스 참전용사협회의 가교역할을 담당. KTX 사업, 수처리 세계 1위 데그레몽사 고문역. 한민족 대표자 한상총연 창립멤버로 해외 한상네트워크 역할에도 열성이다.



BTS White House

Our Nations "Beyond The Borders"

CITIZEN DMZ